

# 원희룡 장관, “국민에게 희망 주는 주택정책 펼칠 것”

## - 16일 주택 학술대회 강연자로 나서 주거안정 정책 방향 설명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6일(금) 오후 4시 중앙대학교에서 한국주택학회(회장 김덕례)와 청년재단(이사장 장예찬)이 공동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“한국 사회와 집, 그리고 사람의 의미”를 주제로 강연하였다.
- 강연은 주택학자(건국대 조주현 교수), 심리학자(중앙대 정태연 교수), 청년세대(청년재단 임대환 팀장)가 바라본 ‘한국사회와 집, 문제와 지향점’에 대해 각각 이야기하고,
- 원 장관이 세 강연자의 의견에 화답하고, 이어서 ‘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느끼는 한국 사회의 특징과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’에 대해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.
- 원 장관은 “한국 사회에서 주택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”면서, “분명한 것은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라는 점”이라고 말했다.
- 또한, “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해주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주택정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”면서, “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,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”라고 강조했다.
- “국민들께서 살고 싶은 집을 충분하게, 안정적으로 공급하고,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, 주거취약계층은 촘촘하게 지원하고, 주거사다리를 튼튼하게 하겠다”면서,
- “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, ‘국민 주거안정 실현’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2022. 12. 16.

국토교통부 대변인